

추 도 사

임청이사장께

보고드립니다. 임청 이사장.

나는 지금, 이 말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가장하고 싶은 말입니다. 밤새 글을 쓰다가 지우고 또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말로 추도사를 시작해야 할지 도저히 찾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이 말이 내가 임청 이사장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흉부외과 의사에게도 보통의 삶이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임청 이사장도 이런 시간을 불과 한두달전까지 보냈을 겁니다. 늦은 시간 잠들었다가 황급하게 깨어나, 병원에 도착하고, 밤을 병원에서 보낸 환자들의 눈을 한명한명 맞추고,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반가운 동료들과 인사했을 겁니다. 아마 임청 이사장은 남들보다 더 크게 웃고, 더 환한 모습으로 동료들과 만났을 겁니다. 매번 힘들고 긴, 수술이 끝나면, 늦은 시간, 병원 식당에서 식 판에 올려진 밥을 먹고, 그렇게 아끼며 자랑스러워 하지 않던 전공의들과 늦은 회진을 돌았을 겁니다. 일과가 끝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도, 멀리 병원을 떠나 왔다 가도, 전화가 울리면, 청년 임청이 되어 정신없이 중환자실로 뛰어 갔을 겁니다. 가끔은 팀원들과 모여 앉아 저녁을 나누는 자리가 진심으로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사소한 이야기를 듣고, 흉부외과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신입 전공의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그의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옆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보통의 흉부외과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던 일이 었나요? 함께 가야 할 길을, 혼자 떠나버리고 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혼자 걸으면 빨리 갈수 있고, 함께 걸으면 오래 걸을 수 있다 말하며, 함께 걷자고 손을 내밀고,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데, 혼자 떠나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 복도 어딘 가에서, 학회 사무실 한 칸에서 불쑥 튀어나와 멋지게 웃으며 인사하던 사람이, 우리 학회를 이끌겠다고 흉부외과 이사장이 되어, 흉부외과를 더 좋게 만들겠다고, 우리의 앞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이제 흉부외과의 일상에서 거짓말처럼 떠나버렸습니다.

그에게 일상은, 본인 몸이 힘들어도, 순간순간 가슴이 아파와도, 환자, 동료, 가족 그리고 흉부외과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아 내고 살아가는 일이 었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그가 항상 주변을 환하게 밝히려고 본인을 스스로를 태워간 것은 아닌가 하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빙긋 웃는 모습에 가

려, 우리가 왜, 청년 임청이 쓰러질 때까지 그의 아픔을, 어려움을 몰랐었는지, 스스로 책망하고 주저 앓게 될 뿐입니다.

흉부외과의사로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는 가까운 사람들의 마지막을 결국 스스로 책임지게 되는구나. 이 삶이 흉부외과 의사의 숙명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들게 될 때면,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하늘을 볼 것이고, 어떤 이는 깊은 잠을 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일상을 나누며, 지금이 영원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던 우리가, 임청 이사장의 부재를 견뎌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남을 뿐입니다. 전화기 버튼만 누르면 들리는 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서 어른 거리는 그가 남겨놓은 웃음과, 따듯함과 함께 만들어 보자고 약속한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메워가며 살아야 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영겁의 세월이 지나도, 그가 남기고간 무게는 평생 잊지 못한 채 가슴에 새겨져, 묻어둘 시간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 같습니다.

벌써 2년이 다된 일입니다. 그의 이사장 당선사가 왠지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보통의 이사장 당선소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듯 본인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며 그는 당선사를 시작했습니다. 흉부외과를 위해 살아가다 보니 이사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청 이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장이 되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해보니,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좋은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유난히 많습니다. 이 좋은 사람을 모으고 흉부외과를 위해 함께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제가 할 일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흉부외과학회를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그가 평생을 헌신한 흉부외과 학회의 이사장이 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가 말하던 유독 그의 주변에 함께 있던 좋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습니다. 함께 하자고 임청 이사장의 손을 잡았고, 함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려 할 때, 그는 떠나 버렸습니다. 어렵고 답답한, 세상에서, 선배들에게는 많은 질문과 부끄러움을 남기고, 후배들에게는 함께 완성했어야 할 미래를 남기고, 홀연히 떠나 버렸습니다.

아마도, 내게, 임청 이사장의 부재는 평생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환한

웃음속에 숨겨진 숙제를 남은 우리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주었고, 무엇을 해야 할 지,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시간이 우리가 나눠야 할 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보던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 부음 기사에서 바라보다가, 한 구석에서 "임청 교수님 16년간 고마웠습니다."라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16년전 초등학교, 시절 임청 교수님께 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임청 교수님을 기리는 글을 글쓰기가 어릴 적 사진과 청년 임청이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려 놓은 게시물이었습니다. 사진 속 임청 교수는 아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며, 모두에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의사, 그 따듯함으로, 수십년의 병마도 이겨내게 해 주는 의사, 작은 성을 쌓아 올리 듯, 한명 한명 교육하여 성장시키던 전공의들에게도, 그를 따르는 후배들에게도, 그의 길을 앞서가던 선배들에게도 그는 한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 아마도 모두에게 그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임청 교수를, 임청 이사장을 세상에 가장 푸르른 사람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세상을 가꾸려 했던 사람, 흉부외과를 사랑하고 더 푸르게 하려 했던 사람, 모든 사람이 그의 곁에서 쉴 수 있게 했던 사람. 하지만, 황망하게 떠난 그를 위해, 남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시 고민합니다. 아마도 이 고민은 평생을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웃음을. 당신이 남긴 뜻 새겨가며 미래를 향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당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임청 교수는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만들 당신이 꿈꾸는 세상을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여유 있는 웃음과, 넉넉한 당신의 곁을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먼저 내밀어 주던 당신의 손을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걱정과 당신의 고민을, 당신이 한자리에 모아 놓은 좋은 사람들인 우리들이 풀어내 보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세상을 위해 정말 많은 것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2024.08.22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회장 김관민